

[금요산책] 한국농어촌공사, 영동지방 가뭄 극복에 총력

✎ 이형섭 | ☎ 승인 2025.08.15 | □ 16면



▲ 이형섭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강릉 지역은 최근 3년간 여름 가뭄(7~8월)이 매우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년 강릉시 누적 강수량은 394mm로 평년 대비 절반 수준이고, 영농이 시작된 4월 이후 강수량은 258mm로 평년의 43%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강릉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3.4%로 평년 대비 46%까지 떨어졌다. 강릉시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5.4%(8월 12일 기준)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는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저수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저수지 대상으로 용수 공급 일수를 제한하는 간단 급수(2일 급수, 2일 단수)를 6월 초부터 시작했다.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현재는 저수율 40% 이하 저수지의 경우 단수 기간을 주 5일까지 늘린 상태다. 농업용수 단수에 따른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강릉시에 용수 절약 홍보를 여러 차례 요청했고, 용수 절약 현수막 37개를 설치하는 등 농업인의 동참도 호소 중이다.

공사는 7월 6일부터 주말도 없이 강릉지사와 강원지역본부에 가뭄재해대책상황실을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대체 수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취입보 수위 확보를 위해 12개소의 하천을 굴착 했고, 간단 급수로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6개 지역에 엔진 양수기 1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해 대비 설치해 놓았던 간이 양수장 3개소도 지난 5월부터 24시간 가동 중이다. 공사는 강릉시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하락을 늦추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두 달 전인 6월 9일부터 간단 급수를 시작했고 대체 수원 확보를 위해 저수지 하류

정수지에 일 3000t 공급이 가능한 간이 양수장을 긴급 설치했다. 또 강릉시 협조를 받아 성산면 구산보 인근에 엔진 양수기 2대를 설치해 일 1만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 중이다. 향후 저수율 25% 이하부터는 단수 기간을 주 7일로 늘릴 계획이고, 필요시 비영농기에만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사천저수지 용수 활용도 강릉시와 협의 할 계획이다.

선제적 가뭄 대책 추진으로 공사 관리 구역의 농업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지만, 문제는 오봉저수지다. 작년 8월 26일 29.2%로 역대 가장 낮은 저수율을 기록했던 오봉저수지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최저치를 경신했다.

오봉저수지가 가뭄에 취약해진 데는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상수도 공급 지역 확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시설 확대 등으로 인한 강릉시의 물 사용량 증가도 한몫하고 있다. 1986년 최초 공급 시 일 1만 8000t 이었던 생활용수 공급량은 2004년도에 일 5만t으로 증가했고, 2016년 일 7만t에서 지난해 하루 9만 7000t을 기록했다. 42년 새 5.2배가 증가한 수치로 공급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복되는 가뭄은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지금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항구적인 대체 수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상류지역의 식수 전용댐 신설,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인근 저수지 물그릇 키우기(저수용량 확대)사업 및 하류 하천에 지하수댐 신규 설치 등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오봉저수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수지 퇴적토 제거를 위한 준설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낭비되는 물을 최소화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강릉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봉저수지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철저한 대응, 그리고 미래 물부족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지역 사회에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형섭